환율안정을 위한 이종통화 간 직거래시장이란?

원.엔 거래시장은

두 통화 사이의 가치 교환 비율, 즉 환율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시시각각 변하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은행과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이 서울외환시장을 통해 끊임없이 원화와 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화 사이의 환율이 이처럼 시장에서의 직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원.달러 외환시장 이외 원.엔, 원.위안 등 다른 통화와 원화의 직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 거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달러라는 제 3 의 통화를 매개로 산술적 계산을 거쳐 얻어진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100 원/달러고, 국제 시장에서의 엔.달러 환율이 10 엔/달러면 원.엔 환율은 10 원/엔이 되는 식이다.

◇이종통화시장 왜 필요한가

다양한 통화시장의 필요성은 그동안 국회나 민간경제연구소 등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의 원.엔 환율처럼 달러를 매개로 결정되는 '재정(裁定)환율'의 경우,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변하지 않더라도 달러 대비 상대 통화의 가치가 급변하면 자동으로 폭락 또는 폭등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엔 환율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원.엔 시장을 통해 두 통화의 집적 거래가 활성화되면 환율이 '한 다리 건너' 결정될 때 보다 실제 시장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변동폭도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